

## 베이징 오리구이 취안쥐더, 폐유 판매에 공개 사과

출처 : 아주경제



중국의 유명 베이징 카오야(烤鴨·북경 오리구이) 전문점 ‘취안쥐더(全聚德)’가 폐 식용유를 악덕 하수구 식용유

재활용 업체에게 판매한 것이 사실로 확인돼 결국 공개 사과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지난 5월 28일 보도했다.

취안쥐더의 폐유 불법 판매는 하수구 식용유 제조 및 판매업자인 왕(王) 모씨가 적발되면서 알려졌다. 그는 취안쥐더 베이징 삼위안차오(三元橋)점과 올림픽촌점으로부터 지난 2004년부터 2011년 10월까지 오리 기름과 폐 유지를 사다가 재활용 식용유를 만들어 유통시켰다.

이에 대해 취안쥐더는 폐유 수거 업체에 대한 관리가 부신했다면서 공개 사과했다. 이와 함께 사법기관의 지시에 따라 취안쥐더 전 매장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안쥐더는 1864년 문을 연 후 지금까지 유명세를 누려온 중국 전통 음식점이다. 1993년 중국 베이징 취안쥐더그룹으로 변신해 경영 규모를 키웠고, 1999년에는 국가공상총국으로부터 유명 상표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불량 식품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취안쥐더도 이에 이름을 올려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판매 육류에 대한 검역과 보관 표시, 사료 첨가물 등을 위반한 혐의로

대형마트인 화련(華聯) 등 13개 업체와 함께 베이징 시 동물위생감독소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 [중국] 오리 5000마리가 도로 점령?! ‘황당 사고’

출처: 서울신문

오리 5000여 마리가 도로를 ‘점령’하는 황당한 일이 중국서 발생했다.

중국 통신원망 등 현지 언론의 6월 17일자 보도에 따르면, 저장성 타이저우시의 한 도로변에 등장한 이 오리 5000여 마리는 오리농장을 운영하는 홍(洪)씨의 ‘지휘’아래 일사분란하게 도로를 점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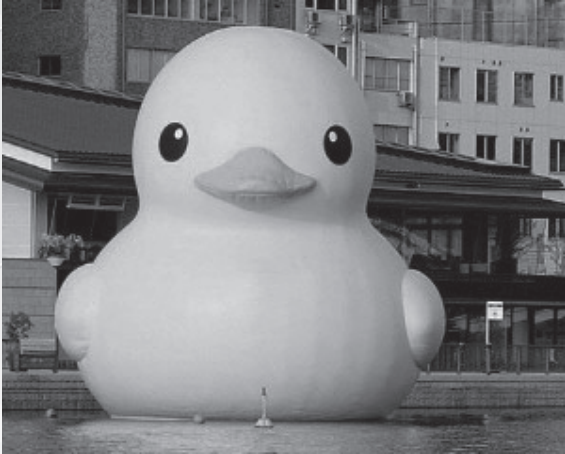
이 오리들이 향한 곳은 인근에 있는 연못. 물을 마시거나 스스로 먹이를 잡아먹는 등 자연에서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우리로 돌아간다.

오리 5000마리가 도로를 가득 메우자 이곳을 지나는 행인과 운전자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오리들이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도로를 건너는 동안,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여 진기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홍씨는 “오리 5000여 마리를 키우기 시작한 6개월 전부터 자주 밖으로 나와 스스로 먹이를 잡아먹게 해 왔다.”면서 “오리들은 여러 번 도로를 ‘점령’하며 먼 길을 다녀왔지만 단 한 번도 길을 잃거나 무리에서 떨어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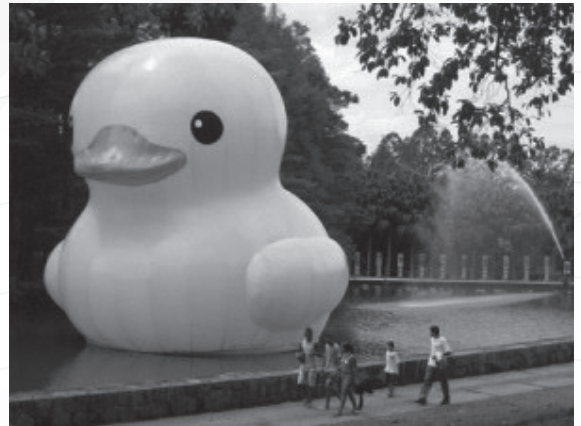
## 세계에서 가장 큰 고무오리 화제



제작한 경험으로 유명하다. 고무오리는 5년 동안 세계 곳곳을 누빌 예정이다.

지금까지 오클랜드,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등의 호수와 운하를 다니며 바라보는 이들에게 미소를 선사했다.

호프만은 “고무오리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어떤 경계와 정치적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고무오리를 통해 “전 세계의 긴장을 해소하고 아픔을 치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고무오리(Rubber Duck)가 등장해 화제다.

해외 유명 디자인 블로그인 탁셀이 지난 6월 8일 물 위를 떠다니는 엄청난 크기의 고무오리를 소개했다.

높이 12m 짜리 거대 고무오리는 네덜란드 출신 아티스트 플로렌테인 호프만에 의해 탄생됐다. 그는 이미 토끼와 개구리 등 다른 거대 동물 인형을

